# “전통예술 일상 속으로… 부산, 국악 교류 거점으로 키우겠다”

인터뷰

**박 성 범 국립부산국악원장**



◆ 프로필

▶ 성 명: 박성범(朴城範 / Park, sung-Bum)
▶ 출생년도: 1972년
▶ 주요경력
-[2026년 8월] 국립부산국악원 원장
-[2020년 2월 ~ 2026년 8월]
국립국악원 장악과장
-[2015년 5월 ~ 2020년 2월]
국립국악원 장악과, 국악진흥과
▶ [2011년 8월 ~ 2015년 5월]
국립민속국악원 장악과장
국립부산국악원 장악과장
▶ 최종학력
- 단국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예술경영 석사
- 단국대학교 국악과 학사

국립부산국악원이 영남권 전통예술의 계승과 발전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문화공간이자 동아시아 전통예술 교류의 거점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공연 콘텐츠 확대와 국악 연구 활성화, 미래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해 지역 전통예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국악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Q. 국립부산국악원이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발전 방향과 비전은 무엇인가.**

“국립부산국악원은 2008년 개원 이후 부산 지역의 유일한 국립전통예술기관으로서 공연과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는 그동안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영남권 전통예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우선 신년음악회와 정기공연, 기획공연, 송년공연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층을 넓힐 계획이다. 지역 전통예술을 소재로 한 공연 콘텐츠도 개발해 시민들이 전통음악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도록 할 방침이다.”

국악 연구 기능도 강화한다. 전국의 학술단체와 협력하는 국악 학술 주간을 운영하고 일본과 중국, 몽골 등 인접 국가의 학술단체와도 교류해 국내 국악 연구의 중심을 넘어 동아시아 학술연구의 거점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문화교류와 관광을 연계한 사업도 추진한다. 크루즈 관광객과 개별 여행객을 대상으로 전통공연을 마련하고 세계 각국의 전통예술 기관과 교류를 확대해 한국 전통음악의 해외 보급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Q. 국립부산국악원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가.**

“국립부산국악원은 개원 이후 다양한 공연과 교육 사업을 통해 부산의 전통예술을 알리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는 공연과 연구,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기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 전통예술의 가치를 발굴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역사회와의 접점을 넓히고 국내외 문화교류를 활성화해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예술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Q. 제5회 대학국악축제 ‘지음’의 성과와 의미는 무엇인가.**

“지난 10월 2일 개최한 제5회 대학국악축제 ‘지음’에는 부산과 대구, 경북 지역의 학생 120여 명이 출연했다. 영남권 청년 예술가들에게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지역 간 국악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다.”

“이번 축제는 대학 간 경계를 넘어 청년 국악인들이 함께 연주하며 유대감을 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가 학생들은 공동 무대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고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청년 국악인들이 서로 교류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 기반의 공연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Q. 국악체험관을 중심으로 미래 국악인 양성과 시민 대상 교육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국악체험관은 영남 지역의 전통예술 자원을 활용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국악을 친숙하게 접하고 미래 예술가나 애호가로 성장하도록 돕는 공간이다. 현재 유아 국악체험과 어린이 국악기 제작 아카데미,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국악체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 성인을 위한 국악문화학교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령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악을 배우고 즐길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교육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뿐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에서 전통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데도 힘쓸 예정이다.”

**Q. 시민들이 국악원을 보다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업이 있다면.**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넘어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전통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한다. 점심콘서트와 음반감상실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해 공연장을 찾는 특별한 날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국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립부산국악원이 공연과 교육, 문화 향유를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발전한다면 전통예술을 경험하는 시민층도 자연스럽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의 전통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시민과 청년 예술가, 국내외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어 부산의 국악 문화가 더욱 넓게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❶ 대청여관 ❷ 무용단정기 ❸ 연희부 각 공연 모습들.

**영남권 전통예술 발굴·계승 앞장**
**정기·기획무대로 관객층 넓혀**
**지역 특색 살린 공연 콘텐츠 개발**
**동아시아 학술협력으로 연구 활성화**
**해외 기관과 문화교류 기반 구축**

**대학국악축제로 청년 예술가 육성**
**세대별 맞춤 교육·체험 기회 확대**
**국악체험관 중심 미래 인재 양성**
**점심콘서트로 시민 문화향유 지원**
**크루즈 관광객 대상 전통공연 추진**



❷ 대학국악축제 ‘지음’ 공연 모습.



❸ 대학국악축제 ‘지음’ 공연 모습.